

자신도 모르는 일상 속의 장애인 비하



~~지랄~~ 하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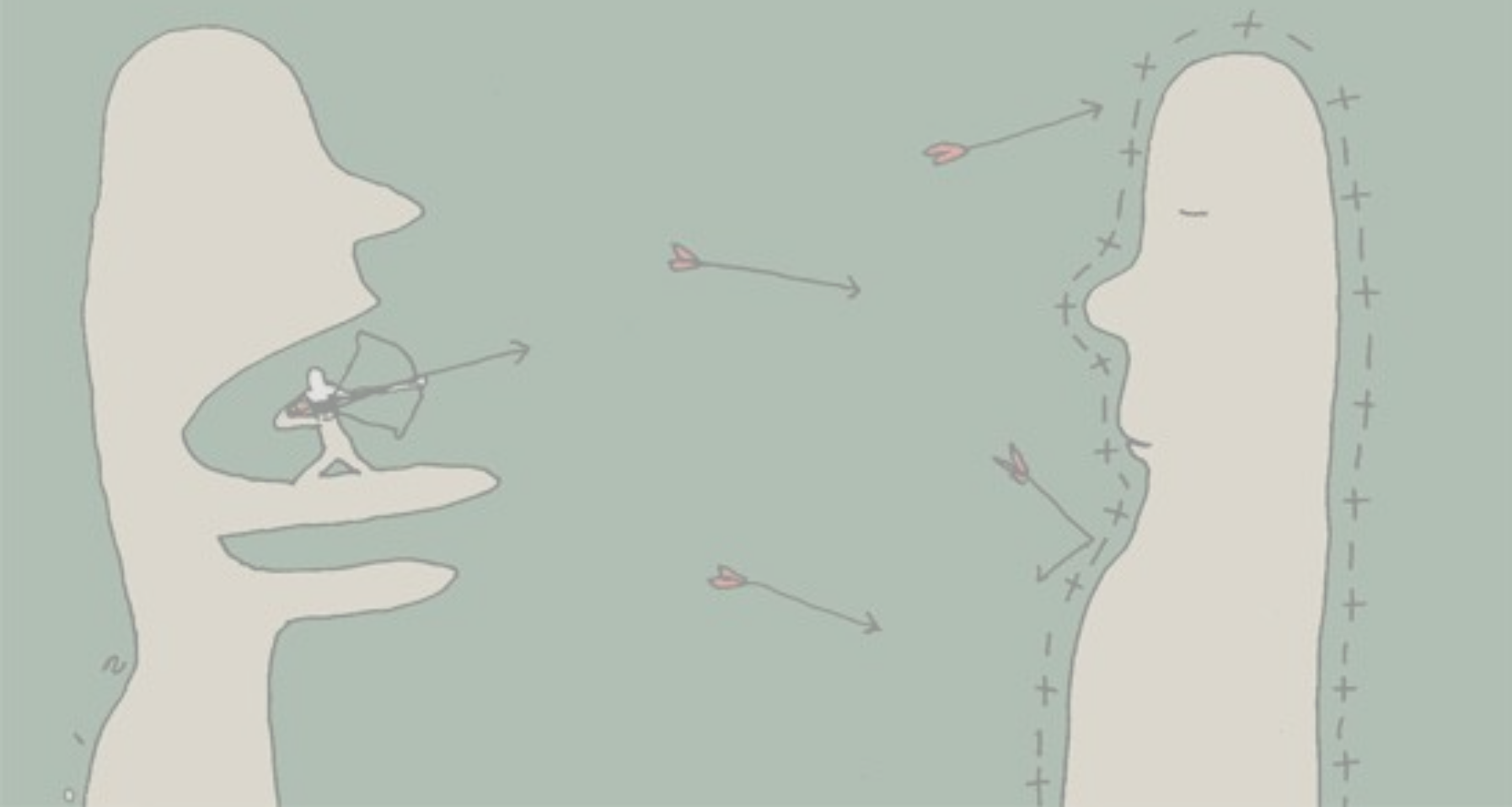
자빠졌네



지랄 :
뇌전증 환자를
비하하는 표현
병신 :
몸이 불편하다는
표현이지만
비속어로 사용

이 외에도
장애, 애자, 귀머거리, 머저리 등
별 생각 없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
비속어들이 있습니다.





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
일상생활 속의
비하적인 표현 사용같은
무의식적 습관부터 줄여 나가야 합니다.

**누군가가 상처받지 않게 하는,
앞으로도 상처받지 않게 할,
인식개선을 위한
우리들의 작은 실천입니다.**

